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다. 날이면 날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적절한 삶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을 판국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아닐까. 그런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부터 폭탄을 터트려 대고 있다. 가관이지 않은가. 이러니 한시인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핵 폭탄을 내던져버린 사건은 부정적 사건의 압권 중 압권이였다. 극한의 비하적 단어를 쓰자면 "참으로 용감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사자는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그를 대통령에 앉힌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닐까.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까지는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단지 거기에서 끝나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앉히면서부터 오늘날의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자고로 사냥개는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만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사냥개는 필요하지 않고, 사냥개 또한 무료할 수밖에 없을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참고하면 어떨까

것이다. 거기에서 사냥꾼으로부터의 사랑도 식어가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겠잖은가.

그런데 단견이자 무식한 듯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에까지 앉혀 버렸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요인 중 한 사람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철두철미하게 도록 당했잖은가. 이때부터 상대 당을 비롯한 정적들은 그런 그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영역을 넓혀간 것 아닌가.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것이 아닐까. 거두절미하고 기왕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동안의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정치를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정적인 방향에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 심리학적 용어까지 활용해 논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되었든간에 과거의 적절하지 않은 한 번의 부실한 듯한 정부가 시행한 인사가 대한민국에 험난한 난국의 악천후를 뿌려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으로 애제다. 막하 대한민국 불행 중 불행의 탄생은 뭐니 뭐니해도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이 아닐까. 느닷없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나 어이없어 했다. 그 이후 3월 중순인 현재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은 패닉(panic)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자국 보호를 위한 극단적 정책들을 온 세계에 핵폭탄 던지듯이 투척해내고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정권이라면 온갖 지혜를 다 짜서 이를 방어하면서 제갈량의 지혜를 소나비 퍼질러대듯이 쏟아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가.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의 날마다 하는 짓거리들을 도저히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마치 이 나라를 블랙홀(black hole)속으로 자꾸만 자꾸만 몰아가는 형국인 것 같다.

이런 대한민국의 극한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처방은 뭘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년 3월 14일~1955년 4월 18일 독일출신 이론물리학자)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참고하면 어떨까. "인생은 두발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우리 집 피난시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다. 아파트 1000만호, 아파트 비율 63%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통계 수치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을까? 아파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대피시설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소방시설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 아파트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해야 위급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피시설로 '완강기'가 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편복도형 아파트이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설치기준에 따라 보통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평소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완강기 사용법도 사전에 알아두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량칸막이'가 있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 베란다의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3층 이상에는 경량칸막이가 존재한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두드려보면 '동동' 소리가 나는 것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만약 현관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유일한 탈출로인 셈이다. 경량칸막이는 대개 베란다에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평소 확인하고 그 곳엔 짐을 쌓아두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생존공간인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2㎡이상의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미리 위치를 알아두고 화재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해 문제가 되곤 한다.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이용하려면 문 앞이나 내부에 짐을 적재해둬선 안 된다. 화재를 대비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 유무, 위치는 아파트마다 다르므로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떠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시에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하는 등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의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점검하길 바란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삼

독자투고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용어는 한번정도 들어봤을만한 문구다. 고흥경찰서 21년도 총 신고건수는 약 12,000여건으로 그중 파출소에 신고한 일반신고는 4,700여건, 무려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112신고는 전남도경 112치안종합

상황실 접수요원이 접수하여 해당되는 경찰서로 하달하면 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112신고는 신고자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목소리(녹음기능) 청취가 가능하고 또한 위치추적 기능

도 있지만, 파출소로 일반신고를 할 경우 녹음기능이 없어 신고당시 현장상황과 위치를 정확히 알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에서는 일반신고를 112신고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을 일제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

의 112신고 활성화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자 극박한 상황이나 타인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 등등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112신고는 정말 중요하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경찰서 112치안종합실 최영기 경감

녹음과 위치추적 기능 있는 112신고 아시나요?

오늘의 운세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음력 2월 22일)

48년생 지루했던 기다림의 끝이 보인다고. 60년생 먼나라 이야기 들은 척만 해보자. 72년생 내심 불이해도 처음을 지켜보자. 84년생 돌아보니 제자리각을 다시 하자. 96년생 바빠지는 속도에 계동을 걸어보자.

49년생 풍성한 수확 공간이 차고 넘쳐나. 61년생 불평했던 동거 홀로 서기 해보자. 73년생 미루고 있던 계획 출발선에 서보자. 85년생 알수는 줄이고 듣는 귀를 가려보자. 97년생 내심 했던 기대 무겁고 초라하다.

50년생 푸대접을 받아도 미소만 보여주자. 62년생 긍정의 기운이 반전을 불러낸다. 74년생 어려움으로 빠져도 차선을 지켜보자. 86년생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이 밀려온다. 98년생 나쁘다하는 버릇 버리고 고쳐보자.

51년생 낯선 공간에서 소심함을 가져보자. 63년생 근사하고 맛있는 어른이 되어보자. 75년생 주머니 받거나 인심이 오고간다. 87년생 발전과 변화 입자가 단단해진다. 99년생 달콤한 유혹에는 가시 가시 숨어있다.

52년생 쉽지 않은 도전 만능이 불려진다. 64년생 어디론가 사라진 초심을 찾아내자. 76년생 분명한 상상을 하늘까지 닿아준다. 88년생 경직된 자세로 신문을 쌓아보자. 00년생 인간됨을 다해하러 갈아보자.

53년생 급해지는 욕심, 다된 밥을 쏟아낸다. 65년생 암살도 정도껏 지나치면 흉이 된다. 77년생 수지맞은 정사 부자가 되어간다. 89년생 보여지는 부분 꾸미고 치장하자. 01년생 걸음으로 말쑥해도 의심을 가져보자.

54년생 작고 초라한 승리 각오를 다시 하자. 66년생 뜨겁고 감시하는 눈물이 흘러준다. 78년생 한시름 놓여지는 대담을 들어보자. 90년생 새로운 시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02년생 청춘이라 가능한 목표를 가져보자.

55년생 그럴듯한 소문에 실체를 알아내자. 67년생 감시 했던 역경 무용담이 되어준다. 79년생 문제의 소지는 빠르게 정리하자. 91년생 얼굴 바귀는 약속 미리 대비하자. 03년생 거저가던 희망에 불씨가 피어난다.

56년생 힘들지만 뿌듯한 과정을 거쳐보자. 68년생 나처럼 부덕에 이유를 가져보자. 80년생 코노래 절로 나는 소식을 들어보자. 92년생 포기하고 버렸던 꿈을 다시 하자. 04년생 청출어람 승세 스승을 발세유보자.

57년생 주머니 속에 있는 행복을 꺼내보자. 69년생 후회도 미련도 바람에 실어보자. 81년생 의리는 틀어지고 원망만 남겨준다. 93년생 교과서 공부에 경향을 더해보자. 05년생 잔짜가 되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

58년생 착한 정성으로 이웃을 돌아보자. 70년생 먼 길 가는 수고로 관심을 받아내자. 82년생 즐거운 상상에 웃음꽃이 피어간다. 94년생 적당히 허세는 양념으로 해보자. 06년생 모든 게 시가지로 기회를 다시 하자.

47년생 원하던 결과 중심 걱정이 지워진다. 59년생 멀리고 긴장되던 시험을 마쳐보자. 71년생 달콤한 분위기 사탕을 곱씹어보자. 83년생 칭찬이 한 보따리 기운은 날아간다. 95년생 특별함이 담긴 선물 받아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 전 매 일 신 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